

제2주제

청양군의 지역발전 비전과 과제

윤 갑 식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청양군의 지역발전 비전과 과제

I. 서론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양적성장 위주의 산업화 정책 추진 결과, 경제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도권은 환경오염, 토지와 주택의 부족 등 과밀의 폐해에 시달리고 비수도권은 인구, 인적자원, 자본유출로 정체와 침체에 빠지는 등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됨
- 수도권 중심의 인구성장으로 인한 지역격차 등 구조적인 지역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가운데 개별 부처 위주로 분산되고 개별사업간 상호연계성이 없이 추진됨에 따라 실효성이 미흡하였음
-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적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총량적 성장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지양하고 균형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낙후지역의 대표적인 특성을 지닌 청양군을 사례로 지역균형발전정책 하에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동향과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우선 제2장에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동향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청양군 지역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이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아울러 청양군 발전의 새로운 여건변화를 살펴봄. 제4장에서는 청양군의 발전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청양군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요약해서 제시함

II.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동향

1.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1)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기조 전환

(1) 한정적인 공간정책 → 국가발전정책

- 지역발전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지역격차 해소, 낙후지역 진흥 등 국가발전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정된 공간정책에서 벗어나 국가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발전정책으로서 위상을 지니게 된다는 점임

(2) 지역간 균등발전 → 개성적 지역발전역량 구축

-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역간 발전수준과 발전속도의 균등화를 의미했다면 개방적인 세계경제체제 속에서 지역균형발전이란 모든 지역이 자기만의 개성과 경쟁력을 지니고 자립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3) 폐쇄적 공간배분전략 → 개방적 가치창출 전략

- 기존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수도권외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이나 공공시설을 지방이전 하는 분산정책에 의존하였음. 하지만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물적시설을 낙후지역에 재배분(zero-sum)하는 분산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가치창출적(plus-sum) 전략으로 전환

2) 지역발전 정책목표와 전략의 전환

(1) 지역발전 목표의 전환

-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목표는 수도권과 지방, 농촌과 도시 등 지역간 균등발전에 치중해 왔으나, 21세기 새로운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는 모든 지역이 경쟁력을 지니고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환
- 또한 지역간 균등발전을 위해서 상대적 낙후지역의 물적 기반과 생산력 확대 등 총량적 성장이 중시되었으나 새로운 정책기조하에서는 지역고용, 소득증대 등 지역주민의 실질적 생활수준이 우선

(2) 지역발전 대상지역의 변화

-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상지역은 규제지역과 발전촉진지역으로 양분되어 성장억제와 성장촉진의 대립적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새로운 정책 기조하에서는 수도권을 비롯한 모든 지역이 지역발전 대상지역으로서 지위를 지니며, 각자 지닌 잠재력과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치중

(3) 지역발전 추진전략의 변화

- 기존의 지역발전 추진전략은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분산시책을 추진하는 하향적, 외부자원 의존적 전략이었지만 최근의 지역발전 추진전략은 지역잠재력과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상향적 내생적 발전전략으로 변화되고 있음
- 또한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규범성과 비전의 제시보다는 실천가능성과 목표달성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전환

(4) 지원 및 추진방식의 전환

-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와 지원 등 정부의 직접개입 방식에 의존했으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에서는 자유로운 기업여건의 형성 등 간접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지역발전시책은 부문별·산발적 추진방식보다 통합적으로 추진
- 그동안에는 중앙정부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에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인 추진주체가 되고 산·학·연 등 민·관 협력이 강조되고 있음

<표 2-1>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전통적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발전수준 균등화 추구 (지역간 격차 완화) · 지방의 물적기반, 생산규모 확대 (지역의 총량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적 지역경제성장기반 강화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 · 지역고용, 소득 등 생활수준 향상 (주민의 복지효과 증진)
대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외의 지방발전 · 낙후지역 발전 (확정적 행정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포함 전국의 모든 지역 · 다양한 정책지원지역 발전 (가변적 기능지역)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분산시책 (하향적, 외부자원 의존전략) · 장기적 대규모 시책 및 사업추진 (규범성과 비전제시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잠재력, 내부역량 강화전략 (상향적, 신내생적 발전전략) · 경쟁력과 지역경제효과 증진전략 (실천가능성과 실효성 중시)
지원형태 및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직접규제 및 지원중시 · 인프라 확충, 제조업 위주 지원 · 부문별, 사업별 개별지원 방식 (사전적 통제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주도를 위한 간접지원 중시 · 문화, 관광 등 지역특화분야 지원 · 경제성, 효과성 차원의 재정지원 · 부문별 통합, 일괄지원 방식 (사후평가와 관리 중시)
추진주체 및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추진 · 공공기관 주도 추진체계 · 종합적, 포괄적 수행체계 (포괄적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율 및 중앙·지방 파트너십 추진 · 민·관협력추진체계 · 전략부문의 전담수행체제 도입 (전략적 추진체계)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로섬 적인 지역간 균등발전 · 물적·총량적 지역성장 촉진 (거시적 지역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창출적 지역간 상생발전 · 지역잠재력 및 주민복지 증진 (삶의 질 증진 및 내부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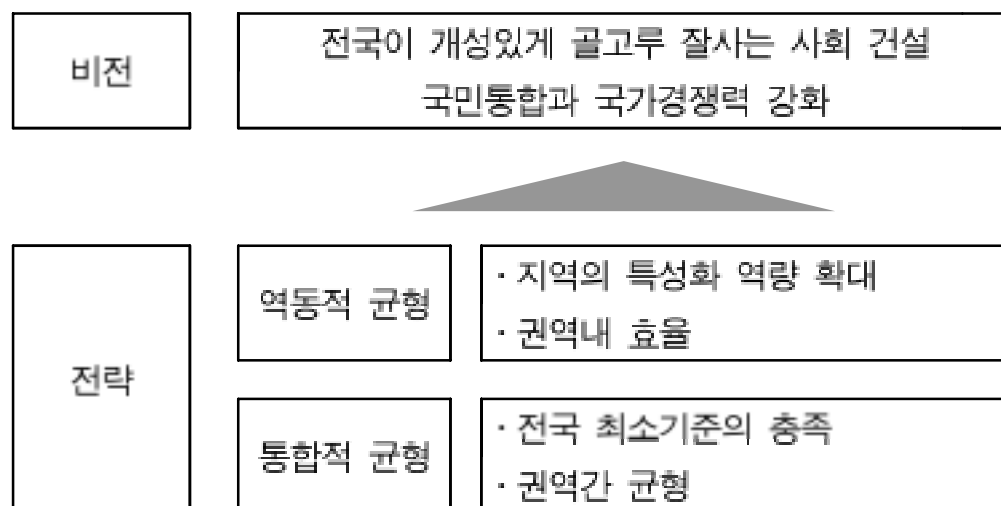
자료: 김용웅 외(2003).

2. 최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

1) 최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주요내용

(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은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자립형 지방화를 통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동적 균형과 통합적 균형전략 강조
- 역동적 균형(내생적 발전역량 극대화)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특성화된 발전 전략(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혁신 체제구축)으로 지역간 발전의 기회 균등을 통한 지역의 발전 잠재력 극대화
- 통합적 균형으로 물리적 인프라(SOC, 물류, 정보, 통신 등)와 생활 인프라(주택, 의료, 교육, 문화 등)의 균형적 발전 여건 조성



[그림 2-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2)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추진과제

○ 지역특화 발전정책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여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의 특색 있는 발전과 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의 산업에 대한 일관된 기획·관리·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SOC 등 기존 하드웨어 기반위에 지역의 산·학·연 등 혁신역량 결집

○ 지역혁신역량 강화

-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 산·학·연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방에 R&D 예산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대학 자립기반 구축

○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고용창출 및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특성있는 지역혁신 및 지역개발을 도모
-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방주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간 협력을 통해 이를 조정 지원

○ 공공기관 지방이전

- 공공기관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책 추진.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방분산을 통해 민간부문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촉진

2) 낙후지역 활성화 정책

(1) 신활력사업을 통한 지역성장 동력 창출

- 신활력사업은 관주도의 생활·정주환경개선 등 인프라 구축 위주의 기존 낙후사업과는 달리 지자체가 포괄적 자율권을 가지고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내 대학·기업·연구소·NGO·언론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임
- 특히, 과거 관주도의 H/W개발에서 SAP(System-Actor-Project) 방식의 지역혁신체계에 기반한 S/W위주로 전환 추진된다는 점에서 신활력사업의 의미가 큼. 즉, 자율적·지속적 발전을 가능케 할 지역혁신 역량 강화 및 내생적 지역성장 동력 창출에 사업의 중점이 있음
- 2004년 인구·산업경제·재정적 측면의 3개 분야 4개 지표에 의거 전국 234개 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평가하여 산업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경제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선정. 2005년부터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시군의 낙후도에 따라 3년 동안 차등 지원하여 신활력사업 추진

(2) 소도읍 육성을 통한 거점지역 기능 확보

-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서 읍지역의 역할이 새롭게 인식됨에 따라 2003~2012년까지 10년간 총 12조원이 투자되는 소도읍 육성종합계획 수립
- 지역이 가지는 유·무형의 강점을 테마로 하여 특화산업을 집중시키고, 도시기반시설과 문화·관광산업 등을 연계하여 육성하는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 공모제와 투자효율성을 배가하는 선택과 집중,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안정적 지원과 책임추진을 약속하는 육성협약제도 등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차별화된 추진전략을 도입

- 총 194개 읍중 2003년부터 현재까지 43개읍을 선정하여 1,337억을 투자하여 소도읍 육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

(3) 농산어촌 마을종합개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 농산어촌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생활권이 같은 3-5개 마을을 소권역으로 설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을 바탕으로 기초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공동소득기반 확충, 주민역량강화 등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고 쾌적함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권역내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과 연계함으로써 주민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농촌모델 창출 및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표로 설정
- 농촌마을종합개발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000여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2004년 사업착수 대상지 16개 권역과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20개 권역을 선정
- 지역별로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또는 민간기관과 컨소시엄 및 위탁방식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
- 산촌종합개발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정주기반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1995년부터 시작하여 2004년 말 현재 108개 마을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였고 2005년에는 45개 마을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

3) 최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특징

(1)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발전전략

- 외부지원에 의존하는 발전전략보다는 지역내부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적 혁신역량 제고 강조

(2) 투자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전략

-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나눠주기식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 추진

(3)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평가 시스템 강화

- 물량 중심의 실적주의에서 벗어나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집행과정 및 사후평가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음(신활력사업의 경우 F/D 제도 도입)

(4) 물리적 환경개선(H/W)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S/W) 중시

- 생활기반시설 및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개선보다는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중시

(5)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상향식 계획수립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내 다양한 주체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상향식 계획 수립이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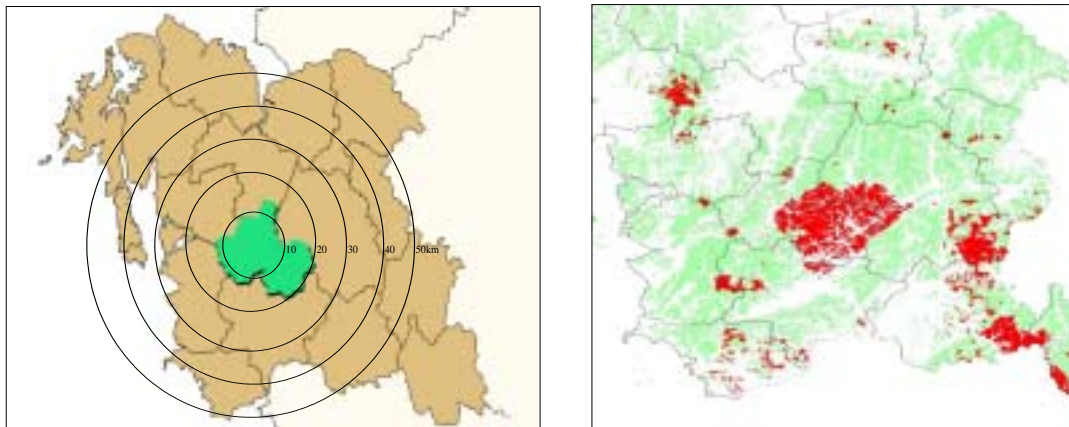
Ⅲ. 청양군의 여건과 발전 잠재력

1. 청양군의 현황과 문제점

1) 자연지리적 현황

(1) 충남의 지리적 중심지

- 청양군은 충청남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동쪽은 공주시, 서쪽은 보령시, 남쪽은 부여군, 북쪽은 예산군과 인접해 있으며 광역적으로 대전시의 사회·경제적 영향권에 포함



[그림 3-1] 청양군의 위·세력권 [그림 3-2] 충남의 생태자연도

(2) 풍부한 산림면적 : 충남의 알프스

- 청양군의 임야면적은 전체면적의 64.8%로서 충남 평균인 52.3%보다 훨씬 높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충남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해 충남의 지붕역할을 담당
- 따라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충남의 허파기능

을 담당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연생태계 관리 방안 필요

(3) 천혜의 기후조건 : 특산물 재배에 유리

- 청양은 내륙에 위치하여 사계절이 뚜렷하고 같은 위도상의 해안 지역에 비해 겨울기온은 낮으며 기온의 연교차가 큰 내륙성 기후의 특징을 보임. 일기별로는 맑은 날이 247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강수와 눈이 오는 날은 각각 68일과 24일을 차지
- 이러한 청양의 기후는 고추, 구기자, 메론 등 특산물 재배에 유리한 천혜의 조건 제공

<표 3-1> 청양의 기후

구분	기온(℃)			강수량 (mm)	평균풍속 (m/s)	평균습도 (%)
	평균	최고	최저			
1996	11.0	36.2	-17.0	1,009.0	1.1	77
2000	10.7	34.4	-16.5	1,551.0	1.6	79
2003	11.1	32.0	-20.3	1,371.0	1.2	87

자료: 2004 청양 통계연보, 2004.

(4) 양호한 수질 유질

- 청양군의 하천은 주로 칠갑산, 오서산 등 차령산맥의 지맥에서 발원하여 금강본류나 지류, 무한천 수계로 유입
- 청양군내 모든 수계는 지역내 산지에서 발원하여 타 시군으로 흘러가며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하천이 전혀 없음. 이러한 지형적 특성과 지역내 대규모 오염원이 없어 청정한 수질 유지

2) 인문사회적 현황

(1) 인구의 지속적 감소

- 2003년 현재 청양군의 인구는 37,194명으로 충남의 약 2%를 차지하며 1990년 이후 연평균 2.68% 감소
- 청양군의 가구는 지난 10년동안 연평균 0.2% 증가하였는데 지속적

인 인구감소를 고려할 때, 이는 가구규모가 점점 영세해짐을 의미

<표 3-2> 인구 및 가구변화 추이

(단위: 명, %)

구분		1990	1995	2000	2003	연평균성장률
인구	총 남(A)	2,013,926	1,855,346	1,930,234	1,930,132	-0.4
	청양군(B)	53,621	45,736	41,093	37,194	-2.7
	B / A	0.03	0.02	0.02	0.02	-
가구	총 남(A)	478,579	514,254	589,144	691,966	2.8
	청양군(B)	13,488	13,631	14,030	13,761	0.2
	B / A	0.03	0.03	0.02	0.02	-

자료: 충남 통계연보, 청양 통계연보 각 년도.

(2) 지속적인 노령화

- 청양군은 유년층 13.6%, 청장년층 63.1%, 노년층 23.2%로서 초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음. 또한 고령화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청양군과 청양읍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경제적 현황

(1) 경제규모와 구조

- 사업체수 기준으로 살펴본 청양군의 경제규모는, 지난 7년간 연평균 0.1% 감소하였고 고용자수는 1.2% 감소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음
- 청양군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농가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55%로서 전국 평균의 5배를 넘고 있어 전형적인 농업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산업별 특화도를 고려할 때 청양군은 농업 생산물에 기

초한 지역발전 전략 추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표 3-3> 경제규모 추이

구분		1995	2000	2002	연평균 성장률
충 남	사업체	107,397	119,149	119,762	1.6%
	고용자	456,807	496,966	525,595	2.0%
청양군	사업체	2,339	2,378	2,315	-0.1%
	고용자	9,242	8,933	8,521	-1.2%

자료: 충남 통계연보 2004, 청양 통계연보 2004.

(2) 지역특산물

- 청양을 대표하는 지역특산물로는 고추와 구기자, 메론 등을 들 수 있음
- 고추의 재배면적은 944.3ha로 충남의 12.9%이고 생산량은 2,210톤이며 농가당 수입은 3,624천원에 달함
 - 밤낮의 일교차가 커 매운성분 함량이 높고 감칠맛이 나며 과피가 두껍고 색깔이 진홍색임. 태양건조 및 원적외선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하여 상품성이 우수(2005년 1월에 상표등록)
- 청양지역에서는 1,300여호 136ha에서 249톤의 구기자가 생산되어 연간 약 36억원의 소득 창출
 - 청양지역에서는 전국 구기자 생산량의 약 70%를 생산하고 있어 전국 제일의 구기자 명산지임
- 메론은 160여 농가에서 73ha를 재배하여 연간 46억원의 소득을 창출하며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메론보다 당도가 높고 맛과 향기가 좋을 뿐 아니라 과육이 많고 부드러워 일본으로도 수출되고 있음

<표 3-4> 청양 특산물 개요

구분	재배면적	농가수	생산량	생산액	비고
청양고추	944.3ha	5,792호	2,210톤	210억원	충남의 12.9%
청양구기자	136ha	1,300호	249톤	36억원	전국 생산량의 70%
메론	73ha	160호	-	46억원	일본으로 수출

자료: 청양군 내부자료(2005).

4) 문화·관광자원 현황

- 청양군내 문화재는 총 38개로 국가지정문화재 10개(국보 2개, 보물 7개, 중요민속자료 1개), 지방지정문화재 13개가 있음
- 1973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칠갑산은 차령산맥의 잔구(殘丘)로서 주변지역에는 명승과 명찰이 많으며 충청남도의 알프스로 불림. 칠갑산 주변에는 장곡사, 지천구곡(之川九曲)·삼형제봉(三兄弟峰)·장곡사(長谷寺)·정혜사(定慧寺)·두릉윤성, 1979년에 만든 인공 저수지인 천장호(天庄湖), 칠갑산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명소들이 산재해 있음



[그림 3-1] 청양군 문화·관광자원

2. 청양군 지역개발사업 추진 동향과 평가

1) 청양군 지역개발사업 추진 동향

(1) 신활력사업 추진

- 청양군은 낙후지역의 자립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생동감 있는 활력지역을 만들어 전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정된 신활력지역(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상의 낙후지역)으로 지정
- 지역특성에 부합되고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여 소득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원칙에 의거하여 지역혁신협의회 등 관련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 선정
- 청양군신활력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역농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혁신체계(RIS) 확립과 청양을 대표하는 7가지 농산물 중에서 청양고추 명품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표 3-5> 청양군신활력사업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투자금액
RIS 구축	· 지역혁신협의회, 청양고추연구센터, 청양고추 포럼 등 지역혁신조직 운영 · 지역혁신 워크샵, 벤처농업인 육성, 농촌관광경영인 양성, 청양아카데미 운영	2,000백만원 (1,950백만원)
파워 7갑 청양고추 명품화	· 친환경 재배 시스템 구축, 청양고추 품질표준화 및 품질관리 등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 · 고춧가루 생산 현대화, 매운맛 등급별 고추장 개발, 청양 특산물 함유 고추장 개발 · 파워7갑 공동 BI 개발, 포장재 디자인 및 홍보판촉물 제작, 청양고추 홍보·마케팅 · Green-Come 운동전개, 도농교류 확대, 농촌관광상품 개발	10,500백만원 (7,400백만원)
합계	-	12,500백만원 (9,350백만원)

자료 : 청양군신활력사업(2005)에서 정리.

(2) 소도읍 사업 추진

- 청양군 청양읍은 도시와 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배후 농촌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담당하는 소도읍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005년에 선정
- 청양읍 종합육성계획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해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됨
 - 첫째,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청양의 전략산업인 고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기 위한 청양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
 - 둘째 고추·구기자의 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고추·구기자 특화시장 기능 강화사업
 - 셋째, 충남 최고의 산림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푸른 청양 가꾸기 사업

<표 3-6> 청양읍 종합육성계획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투자금액
청양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	· 채류형 주말농장 조성 · 전시·홍보관 조성 · 고추테마공원 조성 · 그린투어리즘 네트워크 허브 구축	8,200백만원
청양시장 활성화 사업	· 웰빙먹거리 장터 조성 · 고추·구기자 기능 강화 · 상인 역량 강화 및 세계 매운 맛 먹거리 축제 개최	7,500백만원
푸른 청양 가꾸기 사업	· 우산 생태숲 조성 · 지천 수변 생태공원 조성 · 경관가로 조성 · 아름다운 지붕정관 가꾸기 및 벽면·옥상 녹화	5,500백만원
합계	-	21,200백만원

자료 : 청양읍 종합육성계획(2005)에서 정리.

(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 청양군 정산면 서정권역이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으로 2004년에 지정
- 하늘아래 최고의 청정성을 지닌 마을로서 청양군의 이미지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권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하늘빛 땅빛 물빛 마을”이라는 비전 설정
- 낙후한 지역여건을 재해석하여 ‘4개의 최고와 2개의 최저가 함께 있는 마을’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최고의 청정성과 농촌성을 지닌 마을로 인식 전환

<표 3-7> 서정권역 마을종합개발계획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투자금액
자연환경보전계획	· 하천재해방지시설 조성 · 수변공원 조성	436백만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청소년 체육시설, 장승공원 조성 ·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쉼터 조성 · 산책로, 꽃길, 주차장, 마을연결도로 보수 등	1,785백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 방문자 센터 조성 및 전통문화체험관 리모델링 · 가재체험장, 웰빙체험농장, 장류가공시설, 구기자 체험관 등 체험시설 조성 · 표고뽕밥배지재배사 조성 · 대나무 낚시터, 어린이 동물체험장 조성 등	2,659백만원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	· 리더육성 및 주민교육 · 친환경재배기술교육 · 권역내 정보화 및 권역종합안내시스템 구축	662백만원
기타	· 세부설계비 및 사업관리비 등	584백만원
합계	-	6,126백만원

자료 : 충청남도 청양군 서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2005)에서 정리.

(4) LOHAS Green21 포럼 추진

-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의 포럼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양군에서는 LOHAS Green21 포럼 추진(2005. 9. 1 ~ 2006. 8. 31)
- LOHAS(Lifestyle of Health & Sustainability)는 건강과 환경으로 대표되는 웰빙(well-being)의 상위개념이자 미래산업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음
- LOHAS Green21 포럼은 청양군의 주력산업인 농업과 Green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새롭게 변화·발전하며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선순환 신공동체 형성을 지향

2) 청양군 지역개발사업의 평가

- 최근 청양군은 낙후지역 육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신활력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정부시책의 수혜자로 부상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청양군은 낙후지역 육성정책의 시험무대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동 정책의 평가를 위한 매우 좋은 사례지역임
- 청양군의 지역개발사업은 아직 시행초기 단계이므로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음. 하지만 최근의 지역개발정책 추진동향과 사업내용이 부합하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평가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음
- 앞에서 살펴본 최근 지역개발정책의 특징인,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발전전략, 투자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전략,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상향식 계획 수립, 혁신주도형 계획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청양군의 지역개발사업은 전체적인 개발방향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신활력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모두 고추·구기자로 대표되는 지역의 고유자원과 청정한 지역이미지를 계획의 주요 테마로 설정하고 있어 내생적 발전전략과 선택과 집중전략을 취하고 있음
- 하지만 청양군의 지역개발사업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지역 내부적으로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했다고 하지만 전국적인 측면에서는 차별성이 미흡한 면이 있음. 즉, 지역의 내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청정성과 고추, 구기자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전국 낙후지역의 대부분이 청정성을 내세우고 있고 특산물 또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미흡하게 보여 질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추진방법 상의 차별성으로 극복할 수 있음. 왜냐하면 동일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임
- 실제로 동일한 여건하에서도 성공한 농촌사례가 나오는 것처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성공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결국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중요함을 시사함. 따라서 청양군의 낙후지역 육성정책이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는 사례(best practice)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배후지역간의 연계성 즉, 지역개발사업의 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미흡함. 또한 고추·구기자 등 지역의 대표산업과 다른 산업의 연계 발전 전략이 미흡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장기적 발전전략을 구체화하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3. 청양군 발전의 새로운 기회

1) 농촌성(rurality)의 중요성 확대

-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은 자연생태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도시와 대비되는 공간 또는 지역사회로 이해되어 왔음
- 특히, 농촌지역은 농업지역으로 인식되었으며, 농촌의 기능적 가치, 식량의 생산과 원료의 공급, 도시 공산품의 소비시장, 나아가 산업사회에서 농촌은 부수적 공간 혹은 나머지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음(농정연구센터, 2004)
- 소득수준의 향상, 주5일 근무제의 확대,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일반 국민의 농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
 - 즉, 기존에는 낙후된 공간, 식량공급처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휴양공간, 생산공간, 생활공간이라는 인식 전환이 확대되고 있음
- 또한 도시지역과 차별화되는 농촌의 기본속성인 농촌성(rurality)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에는 농정의 기본이념이 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고 있음

2) 농촌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새로운 가치 인식

- 어메니티(Amenity)란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감흥으로서의 쾌적성을 의미하며 농촌어메니티는 단순한 쾌적한 환경이라는 의미보다는 농촌지역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으로 봄(전영옥, 2003)
- 농촌어메니티 자원은 청정한 자연환경,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원 풍경으로서 농촌경과, 특산물, 경작지 경관, 역사적 기념물, 문화

적 전통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의미함

- 최근 여가관광시장의 확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농촌어메니티 자원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어 이는 지역활성화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재인식
- 낙후된 농촌지역은 어메니티 차원에서 재평가할 때 청정한 이미지의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재인식될 수 있어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충남 서천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늦어져 지역발전이 정체된 것에 대한 역발상을 시도하여 어메니티 개념을 역동적인 지역회생정책으로 활용하여 ‘어메니티 서천’을 지역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군정의 기본전략과 지침으로 활용

<표 3-8> 어메니티의 개념

구분	개념
어메니티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쾌적성
농촌어메니티	도시어메니티와 다르게 삶의 질은 물론 농촌지역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개념
농촌어메니티 자원	농촌주민의 삶의 질과 쾌적성 및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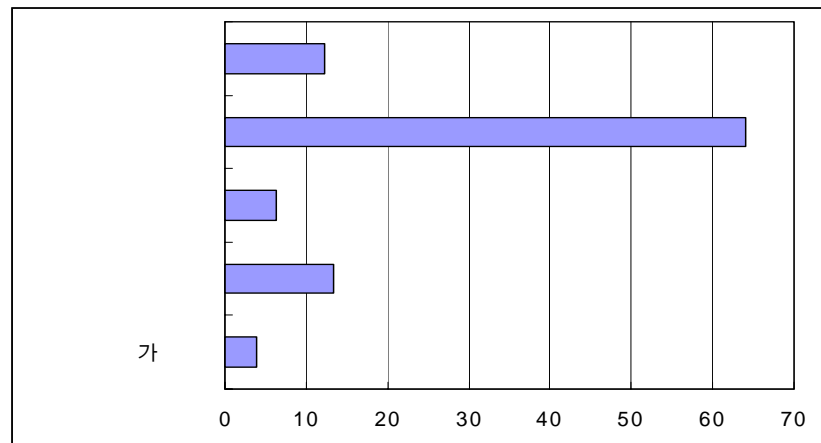
자료 : 서천군(2005).

3)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 확대

(1) 농촌관광 수요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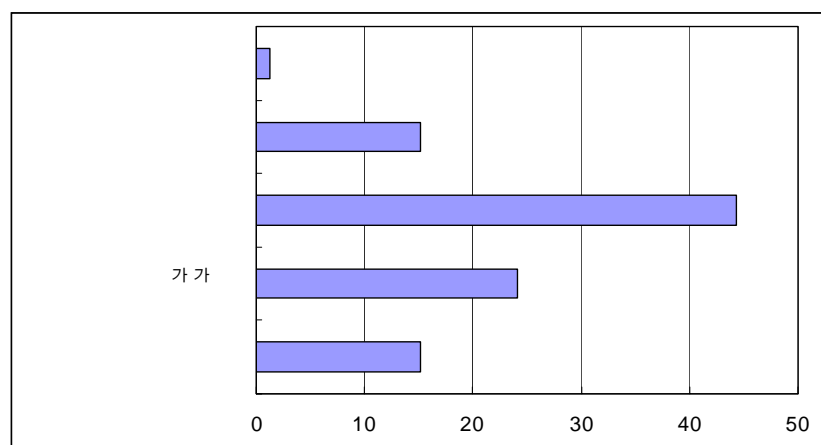
- 농림부·국정홍보처에서 실시한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의 선호도 조사(2004)에 의하면 향후 1년내에 농촌관광을 가실 의향이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17.3%(반반 포함)로 나타났음

-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농촌관광 참여는 연간 0.35회에서 0.73회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농촌경제연구원, 2003). 이러한 경향을 반영할 경우 주5일 근무제가 일반화 될 경우 농촌관광은 17.3%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34.6%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2] 농촌관광 의향

- 농촌관광의 희망지역으로는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곳 (44.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거주지와 거리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24.1%), 유명한 관광지 주변의 휴식처(15.2%), 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곳(15.2%)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3-3] 선호하는 농촌관광지역

(2) 농촌관광 전망

-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고속교통망의 확충, 노동중심의 가치관에서 여가중심의 가치관으로의 변화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인해 국내 관광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웰빙 중시 추세로 전원생활 선호 및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와 연계된 농촌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박시현 외(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농촌관광객의 총량은 2001년 약 3천 9십만명에서 2011년에는 약 9천 3백만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1.64%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농촌 관광 수요가 일반관광보다 약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3-9> 농촌관광 수요 전망

(단위: 천명)

구분	2001년	2005년	2008년	2011년	연평균 성장률			
					2001-2005	2005-2008	2008-2011	전체
연 국내관광 총량(A)	327,929	507,436	536,876	605,968	11.5%	1.9%	4.1%	6.3%
연 농촌관광 총량(B)	30,829	58,355	70,868	92,713	17.1%	7.0%	9.3%	11.64%
비중(B/A)	9.4%	11.5%	13.2%	15.3%	-	-	-	-

자료: 송미령 외(2003).

4) 접근성 개선

-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청양군은 농촌관광 목적지로서의 매력도가 증진

- 또한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공주-서천 고속도로, 대전-당진 고속도로, 공주-보령 고속도로 등이 개통될 경우 청양군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첨단산업 등 새로운 산업의 입지공간으로서의 가치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중앙행정기관 12부 4처 2청이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로 이전하여 인구규모 30~50만명 규모의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로 개발될 예정임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품격 높은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을 통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 편리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인간중심 도시, 문화와 첨단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를 추구하고 있음
- 청양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최인접 배후지역으로서 도시개발의 파급효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역임과 동시에 지역의 세력권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흡입되어 오히려 지역이 위축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청양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전시 등 인구 300만명의 배후지역으로 부상한 여건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청양군은 충남에서 가장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청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될 경우 청양군은 최인접 배후지역으로서 5도2촌의 최적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양한 농촌 체제·정주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러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주공간 조성전략이 요구됨

Ⅳ. 청양군의 발전전략과 과제

1.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1)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

- 청양군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지역농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이 강조되고 있음
- 지역농업 클러스터란 일정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 결집체(농림부, 2004)
- 지역농업 클러스터는 생산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가공·유통 등 농산업과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을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방식의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지역핵심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관의 모든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고양하고자 하는 정책임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농업 클러스터란 새로운 산업이나 산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클러스터 개념을 바탕으로 기존의 산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클러스터로서의 구성요소나 요소간의 연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지역농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구성주체들을 조정·통합할 수 있는 중재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클러스터 구성주체간의 지식과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학습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청양군 신활력사업과 소도읍사업은 청양의 대표 특산물인 고추·구기자 산업의 클러스터 육성을 목적으로 이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도읍 사업과 신활력사업을 기반으로 농업클러스터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혁신협의회에 가칭 ‘고추·구기자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2)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 지역농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향토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방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 스스로가 차별화된 자립형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지금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규제개혁은 다양한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규제도 지역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새로운 인식하에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도입
- 현재까지 순창장류산업특구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26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실제로 순창의 장류산업특구의 경우, 장류관련 매출액이 22% 증가하였고, 고창 복분자산업특구에서는 복분자의 재배면적이 2배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2005)
- 따라서 청양군에서도 고추·구기자 산업에 관한 한 전국적인 생산·유통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매력적인 정주공간 창출

1) 소도읍사업과 연계한 정주환경 정비

- 주거환경 정비, 공공시설의 공급확대, 주민복지 향상 등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은 현재 청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 소도읍사업과 연계된 정주환경 정비 전략의 세부적인 시책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정비
 - 오랜 역사를 겪으면서 형성된 주거지구는 지역, 사회, 문화 등의 측면에서 개성과 특성을 갖고 있으며 당면한 문제도 다르고 그 해결방안도 다름
 - 도심주거지의 경우 수복형 재개발을 추진하고 주택·도로여건이 양호한 주거지는 현재개발방식을 적용하며 고밀개발이 가능한 주거지는 공동주택건설방식을 적용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거환경 정비방식 활용
- 둘째,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 지역내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은 그 고유한 기능 외에 커뮤니티센터로서 지역주민의 교류와 사회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지역 주민조직이나 관련 단체들이 주관하는 행사의 장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이의 확충이 필요함
 - 지역 커뮤니티의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공급확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셋째, 청장년층 정착유도와 노년층의 생활복지 증진
 - 이농현상으로 인한 지역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도시지역과 유사한 편익과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정주환경 마련이 필요

- 특히, 청장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고 노년층의 생활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주민 생활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요구됨

2) 도시민을 위한 주거공간 조성

- 최근 농촌의 역할이 농업생산에서 생활·경제활동 공간, 환경 및 경관공간으로 확대되면서 농촌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음
- 소비자들의 생활패턴 다양화로 전원생활 선호 및 고품질의 안전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이와 연계된 농어촌 체재 및 체류증가가 예상됨
- 인구의 노령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은퇴자 등 노령인구가 쾌적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농촌의 기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청양군과 같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농촌지역은 농촌에 체재하거나 정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을 유치하기에 매우 적절한 지역임
- 청양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될 경우 5도2촌의 최적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양한 농촌 체재·정주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도시민의 다양한 농촌 체재·정주유형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주공간 조성전략이 요구됨
- 농촌체험관광 및 주말전원생활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 체재형 정주공간 및 취업형, 노후 생활형, 도시 출퇴근형 등과 같은 유형의 농촌 정주공간을 전략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과 인터넷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표 4-1> 도시민의 농촌 체제 · 정주유형

구분		주요내용
농촌 체제형	농촌체험관광형	도시에 거주하면서 주말에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농사, 전통 문화 등을 체험
	주말전원생활형 (Second House)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촌지역에 별도의 전원주택을 보유하고 별장으로 이용하거나 주말농장으로 운영
농촌 정주형	취업형	도시에 거주하다가 농어업 또는 2·3차 산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
	노후생활형	직장 은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지낼 목적으로 농촌에 이주
	도시출퇴근형	생계수단은 도시에 있으나, 낮은 집값, 전원생활 향유 등을 목적으로 농촌에 정주하면서 도시로 출퇴근
	기타형	각급학교 · 대안학교 취학, 휴양 · 치료 등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

자료 :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5).

3. 농촌관광지로서의 매력도 제고

1) 차별화된 농촌관광 프로그램 마련 · 보급

-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수립이 강조되면서 대부분의 낙후지역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역의 경쟁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도시의 소비자를 지역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한 농촌관광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낙후지역은 도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경쟁환경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농촌관광 프로그램)가 얼마나 고객(도시 소비자)의 수요를 잘 반영하면서 다른 지역의 그것과 차별화 되느냐가 가장 중요함
- 하지만 현재 농림부를 포함해서 행자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등 다양한 부처에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내용이 유사해 지역간 · 사업간 차별성이 미약한 실정임

- 따라서 청양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단순히 답습하기 보다는 청양의 인지도를 각인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농촌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절실히 요구됨.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청양군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Green-Come 운동의 적극적 추진이 요구됨

2) 지역 어메니티 자산의 보전 및 발굴·활용방안 마련

- 어메니티 자원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어 지역활성화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재인식되고 있음. 이로 인해 낙후지역에서는 어메니티 자원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되고 있음
 - 어메니티 자원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내 산업활동과 연계됨으로써 주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어메니티 자원은 유·무형의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크게 자연생태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음
- 청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생태자원, 향토 문화자산을 발굴하여 이를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어메니티 자원의 지속적인 유지·보전방안도 마련해야 함

<표 4-2> 어메니티 자원의 유형 구분

구분	주요내용
자연생태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자원과 자연경관자원을 포괄 · 환경자원 : 맑은 물, 소음이 없는 환경, 자연의 소리 등 · 자연경관자원 : 산림·하천·해안경관, 특이 지형 등
문화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자원과 문화경관자원을 의미 · 역사자원 : 문화재, 인물스토리, 전설, 역사적 사건 등 · 문화경관자원 : 농업경관, 마을경관 등
사회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자원과 문화활동으로 구분 · 상품자원 : 농특산물, 유기 농산물 등 · 문화활동 : 축제, 노동교류활동 등

자료 : 서천군(2005)의 내용 수정·정리.

4. 지역정체성 확보를 통한 장소마케팅 전략 추진

1) 장소마케팅의 개념과 필요성

- 장소마케팅이란 용어는 1980년대 유럽의 도시와 관련하여 처음 등장하였으며, 장소를 관리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추구되는 일련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포함하는 현상으로 기업가·관광객·주민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장소의 이미지를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노력으로 정의됨
- 상품이 경쟁자의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경쟁자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그 상품 고유의 독특한 정체성(identity)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지자체간의 선의의 경쟁은 불가피하게 되었음. 그러므로 지자체의 자립기반강화와 생존전략차원의 경영전략을 고객중심(기업/주민/방문객)으로 개편하여, 삶의 질이 높은 매력적이고 개성 있는 지자체를 만드는데 장소마케팅전략 도입이 필요함

2) 장소마케팅 추진방안

- 장소마케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임. 그러므로 청양군 장소마케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양군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및 분석 작업을 통한 지역자산의 재평가작업을 통한 차별화된 마케팅 컨셉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즉, 청양군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사회간접자본 외에도, 자연적 자산, 문화적 자산, 사회적 자산, 산업자산 등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해야 함
- 장소마케팅의 추진은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지역특성을 반영한 로고, 색채 등을 포함한 명함, 브로슈어 등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축제 및 이벤트를 통한 마케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함
- 장소마케팅은 지역의 주력산업, 주민생활, 문화적 측면의 접목을 통한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청양군에서는 마케팅 전담부서를 만들어, 총체적인 장소마케팅을 지휘할 필요가 있음

V. 결론 및 정책제언

- 오늘날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한정적인 공간정책에서 국가발전정책으로, 지역간 균등발전보다는 개성적 지역발전역량 구축으로, 폐쇄적 공간배분전략에서 개방적 가치창출 전략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되고 있음
- 특히,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신활력사업을 통한 지역성장 동력 창출, 소도읍 육성을 통한 거점지역 기능 확보, 농산어촌 마을종합개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등 다양한 유형의 시책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최근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발전전략과 선택과 집중전략, 상향식 계획수립 과정을 중요시 하며 내용적으로는 물리적 환경개선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
- 최근 청양군은 낙후지역 육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신활력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정부시책의 수혜자로 부상하고 있어 낙후지역 육성정책의 시험무대라고 할 수 있음
- 청양군의 지역개발사업은 아직 시행초기 단계이므로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음. 하지만 최근의 지역개발정책 추진 동향과 사업내용이 부합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체적인 개발방향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지역 내부적으로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했다고 하지만 전국적인 측면에서는 차별성이 미흡한 면이 있고 또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배후지역간의 연계성 및 고추·구기자 등 지역의 대표산업과 다른 산업의 연계발전 전략이 미흡함

- 이러한 문제는 효율적인 추진체계 마련을 통한 추진방법상의 차별화와 지역의 장기적 발전전략을 구체화하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최근에는 농촌지역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재정립되면서 농촌성과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또한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가장 농촌다운 농촌의 특성을 보유한 청양군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
- 아울러 청양군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대전-당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광역적 접근성이 개선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최인접 배후지역으로 부각되면서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청양군의 발전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전형적인 농업지역인 청양군의 지역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과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 전략이 요구됨
- 둘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매력적인 정주공간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다양한 농촌 체재·정주유형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주공간 조성전략이 필요함
- 셋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농촌관광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지로서의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 어메니티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적극적인 보전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함
- 마지막으로, 지자체간의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새로운 창조성을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장소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참 고 문 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2005),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 김용웅 외(2003),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 김정호 외(2004), 지역농업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부·국정홍보처(2004),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의 선호도 조사 보고서.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5), 농·도생상을 위한 농어촌 복합생활
공간 조성방안.
- 농정연구센터(2004), 농촌개발의 종합적 전략에 관한 연구.
- 박시현 외(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방향 및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외(2004),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사업 실시계획,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2005), 1차 지정 지역특구의 6개월간 성과(보도자료).
- 충남발전협의회·충남발전연구원(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발전방안 자료집.
- 전영옥(2003),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방향, 삼성경제
연구소 Issue paper.
- 청양군(2000), 21세기 청양군 장기발전계획.
- 청양군(2004), 청양 통계연보.
- 청양군(2005a), 파워7갑 특화사업계획서.
- 청양군(2005b), 청양읍 종합육성계획 제안서.
- 청양군·농업기반공사(2005), 충청남도 청양군 서정권역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기본계획서.
- 청양대학(2005), 청정청양 “LOHAS” Green21 포럼(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방향 및 방안.